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1〉

한국불교의 재래 소의경전 가운데 사미과 교재의 하나인 치문경훈(緇門警訓)을 다시 풀어본다. 치문경훈은 고려 공민왕때 태고보우(太古普愚)국사가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와 국내에 유포시킨 것이다. 치문(緇門)이란 먹물 옷 걸치고 입산수도한다는 뜻이다. 치문경훈은 중국 역대 고승들의 법어 중에서 특히 후학들을 경계한 것과 수도의 핵심이 될 내용들을 간추려 놓은 것으로 불교강원의 교재로 편입되기는 1695년 백암(栢庵)스님이 주석을 달아 출판한 때부터이다. 〈편집자 주〉

潙山大圓禪師警策(위산대원선사경책)

夫業繫受身 未免形累 稟父母之遺體
부업계신수 미면형루 품부모지유체
假衆緣而共成 雖乃四大扶持 常相違背
가중연이공성 수내사대부지 상상위배
無常老病 不與人期 朝存夕亡 刹那異世
무상노병 불여인기 조존석망 찰나이세
譬如春霜曉露 倏忽即無
비여춘상효로 숙홀즉무
岸樹井藤 豈能長久
안수정등 기능장구
念念迅速 一刹那間 轉息即是來生
념념신속 일찰나간 전식즉시래생
何乃晃然空過
하내안연공과

헤아려 생각하건대 과거 생의 업식에 매어 받게 된 이 몸은 돌고 도는 유전(형루)을 면치 못함이라

부모의 몸(정·혈)을 빌고 뭇 인연을 빌어(내 몸 속 수많은 생명체들의 인연을 빌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비록 사대육신이 부지하나 항상 서로 등지니(정신·육체가 등지니) 덧없이 늙고 병들고 (죽고사는게) 사람으로서는 기약 할 수 없노라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엔 죽어없어지니 찰나에 세계를 달리한다

비유하자면 봄 날의 서리요 새벽의 이슬과 같아 어느 새 없어지며

물 가의 위태로운 나무같고 우물 속에 갇혀 등나무 줄기에 매달린 꼴이라

어찌 오래 간다고 하리오

생각생각이 어찌나 빠른지 한 찰나 사이 숨 한번 돌리면 곧 다음 생이니 어찌 편안하게 헛되이 (세월을) 보내리요.

> "한 찰라 사이
> 곧 다음 생이니
> 어찌 헛되이 보내리오"

父母 不供甘旨 六親 固以乖離
부모 불공감지 육친 고이기리
不能安國治邦 家業 難得繼嗣
불능안국치방 가업 돈연계사
緇離塵纓 剃髮稟師
면리향당 체발품사
內勤剋念之功 外弘不淨之德
내근극념지공 외홍부정지덕
迴脫躍世 覓期出離
형탈진세 기기출리
何乃綴裳戒品 便言我是比丘
하내재등계품 변언아시비구
檀越所須 喫用常住 不解討思來處
단월소수 끽용상주 불해촌사래처
訓言法爾合供 喫了
위언법이합공 끽료
棄置前盲 但說人間閒話
취두훤훤 단설인간잡화
然到一期趁樂 不知樂是苦因
연즉일기진락 부지락시고인

(그래서) 부모를 좋은 음식으로 받들지도 않고 부모 형제 처자권속을 한사코 버렸으며,

나라를 평안케하려하지도 않고 가업도 집어던져 대를 잇지 않으며,

향당(세상 일)을 멀리 여의고는 머리깎고 스승에게 계를 받았던 것이다

(그럴진대) 안으로는 부지런히 망념을 쉬어 공력을 기르고 밖으로는 (일체 경계를 둘 아니게 보아) 다툼없는 덕을 넓히고,

티끌같은 세상 멀리 여의기로 기약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고작 (형식적인) 계품이나 따지고 '나는 비구로 소이다' 으시대며

시주하는 이의 공물을 먹고 쓰되 그 마음 낸 자리를 헤아려 생각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법다이 공양을 받을만 하다하여 먹어 치우고는,

모여서 숙덕거리며 (시끄럽게) 단지 인간사 잡스런 얘기거리나 지껄이는 가.

그렇게하여 한 때는 즐거울지 모르나 그 즐김이 바로 고해에 나고드는 까닭이 되는 줄을 모르는도다.

曩劫徇塵 未嘗返省
時光奄沒 歲月蹉跎
랑겁순진 미상반성
시광엄몰 세월차타
受用殷繁 施利豐厚
動經年載
수용은번 시리농후
동경년재
不擬棄離 積聚滋多
保持弘廣
불의기리 적취자다
보지홍질

導師有勅 戒勖比丘 進道毀身 三常不足
도사유칙 계욱비구 진도훼신 삼상 부족
人多於此 貪味不休 日往月來 漸然白首
인다어차 탐미불휴 일왕월래 삼연백수

일찍부터 억겁을 그런 모양으로 육진경계를 따라돌면서 되돌려 (자기 마음자리를) 비출줄 몰랐으니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에 받아 쓰는 것은 가지가지로 늘어나고 시주물 탐하는 마음 더욱 짙고 깊어졌느니 해를 거듭하도록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 여의려 하지 않고 짓는 바 더욱 쌓여 허깨비같은 육신·물질 붙들고 매달리누나 부처님께서 교칙을 두어 비구에게 계행에 힘쓰라 하시되 도에 나아가 몸을 엄정히 함에는 삼상(의복·음식·수면)이 넉넉해서는 안된다 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삼상을 탐하고 즐기기를 그치려하지 않으니 날이 가고 달이 지나매 바람 건듯부는 사이에 백발이 되고만다.

龍眼

수도인 경책한 선문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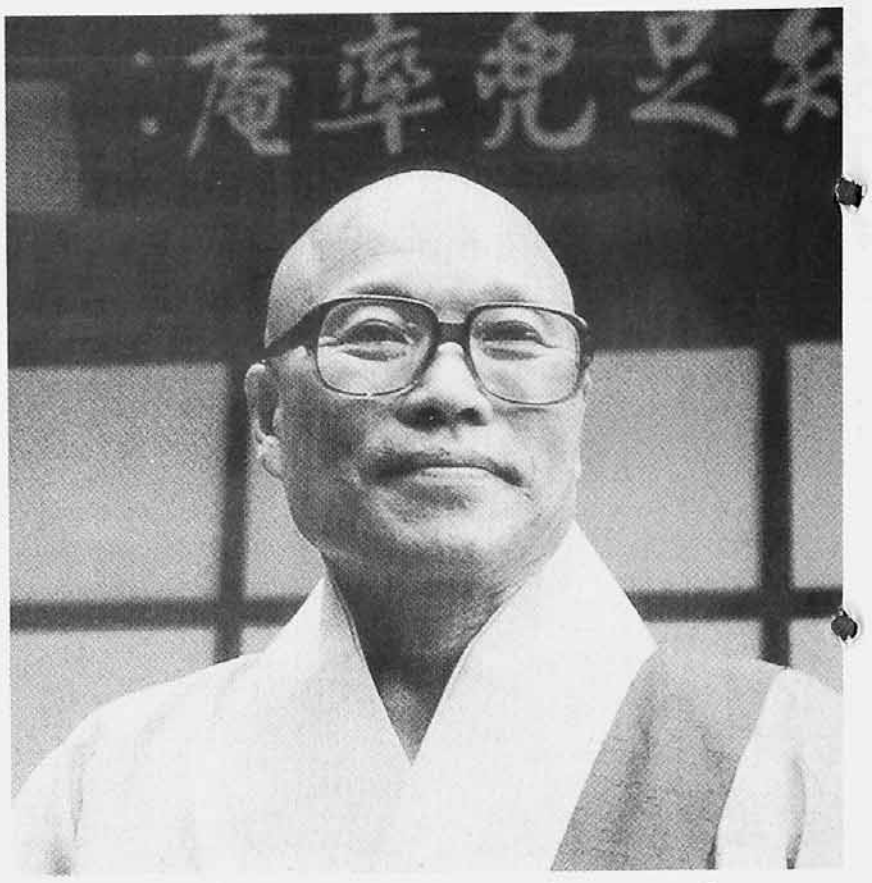
위산대원선사경책이란

중국 당나라때 스님 위산 영우(靈佑 771~853) 선사가 수도인을 경책한 글로 선문의 지침서 격.

위산영우 선사는 위앙종(潙仰宗)의 초조(初祖).

지상 법석

"요행수 바라는 기도



일타스님 은해사 주지

올바른 기도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수십년을 절에 다닌 신도들조차도 요행수를 바라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요행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햇빛 아래에 있다고 할지라도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가 바르고, 형상이 길면 그림자도 길고 형상이 짧으면 그림자도 짧은 것입니다. 이처럼 불보살의 광명장대한 자비는 언제나 중생의 정성과 함께 하지만, 중생은 요행수를 바라고 기도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축신(祝神)에게 기도를 하면 재수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변소에 밥을 가져가서 기도를 하고, 아무개가 쪽집게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곳을 찾아가 점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신(神)이 내린 용한 점쟁이라 할지라도 찾아가는 '내'가 아는 것 이상은 모릅니다. 하다 못해 '내'가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알고 있는 것이라야지, 점을 보러 가는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알아 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넘겨짚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에 의지하여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번민 집착 마음의 병

적어도 불자라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자기 속을 차리고 자력(自力)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행수를 바라고 하는 기도는 마음에 잔뜩 때를 끼게 하고, 언젠가는 사도(邪道)로 빠져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약력

△1929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남.
△1942년 통도사로 출가, 49년 통도사 강원대교과 졸업.
△51년 천화율원에서 율학 수업, 전통율맥을 이음.
△71년부터 해인총림 율원장·율주·금강계단 교수아사리가 되어 후학 양성.
△현재 조계종 전계대화상 및 은해사 주지

헛것에 의지말고 자력참선 정진해야

진실한 불법은 10만 8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업장이 맑아지기는커녕 더욱 두터워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성연기의 뜻을 바로 알아서 요행수를 떠난 자력의 기도를 하고 자력의 참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업장은 저절로 맑아지고 복은 저절로 찾아들게 마련입니다. 불가에 전해지고 있는 중국 당나라 때의 무착문희(無著文喜 : 820~900) 선사와 문수보살(文殊菩薩)과의 일은 자력의 기도, 자력의 참선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착스님은 출가하여 문수보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은 문수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親見)하기 위해 항주에서부터 오대산(五臺山, 일명 淸凉山)까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을 내던지는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절을 하며 갔습니다. 마침내 오대산 금강굴(金剛窟) 부근에 이르렀을 때 한 노인이 소를 거꾸로 타고 오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사람인데 무엇하러 이 깊은 산중에 앉아 있는가?"

"예,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왔습니다."

"문수보살을 가히 친견할 수 있을까?"

말끝에 노인은 그 순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밥 먹었는가?"

"안 먹었습니다."

"순 생짜로군."

그리고는 소를 타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착스님은 노인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느껴 뒤를 따라갔습니다. 얼마쯤 가니 금색이 휘황찬란한 절이 나타났습니다.

"균제(均提)야."

노인이 시자를 부르자, 시자는 뛰어나와 소를 받아 매었습니다. 잠시 뒤에 차가 나왔는데 다완(茶椀)은 모두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차를 마시니 몸과 마음이 형언키 어려울 정도로 상쾌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차가 있다니.'

혼자 감탄하고 있는데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 어디서 왔는가?"

"남방에서 왔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들고 다시 물었습니다.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 없다면 무엇으로 차를 먹는가?"

"말법비구(末法比丘)가 계율을 지켜유지합니다."

"대중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혹 3백명도 되고 5백명도 됩니다."

무착스님은 노인의 질문에 웬지 싱거운 생각이 들어 되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불법을 어떻게 주지합니까?"

"범부와 성현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느니라."

"여기의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전삼삼 후삼삼(前三三 後三三)."

대중의 수를 물었는데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라니…. 무착스님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뿐이었습니다.

1995학년도 법사를 육성하는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

통신 야간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모 집 안 내

1. 모집학부 : 법사과정·오종교법사과정
·오종대법사과정
2. 모집인원 : 출강 ○○명, 통신 ○○명
3.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자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오종교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 :
1995년 1월 5일 ~ 2월 28일까지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733-1959
737-5305 FAX (02)720-1836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 즉시 보내드립니다 *

특전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국제포교에 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함
·각종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733-1959
737-5305 FAX:(02)720-1836

정신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글래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기아 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염불삼매수련 선관삼매수련 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 이 드 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보는 병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제증상
•암, 중풍, 혈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위장병, 변비,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약물중독 외

■ 수련장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용림선원
■ 안 내 ☎ (0593) 34-1115~6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35×70cm 수묵관음도

관세음보살이 이땅에 나투심은
일체중생 번뇌를 멸하여
성불의 연을 지어가게 함입니다.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을 가정마다 모시고
우러러 예경하면 불심 증장과 함께
최상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관음도는 금산스님(대구예인협주대작가)이 한점씩 정성들여 그리시고 청소년 포교기금 마련 및 불화모시기 운동전개를 위해 염가 보급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구입문의 : 02) 841-7165
•보급처 : 불교교육연구원·대동불교예술대학 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885-5